

韓國戲曲文學資料「東廂記纂」에 대하여

柳 鐸 一*

I

韓國의 戲曲文學은 대개 新文學期에 出發되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資料는 그리 흔하지 못하여 研究者의 苦心을 더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近代以前의 戲曲관계 자료는 稀貴하여 얻어 보기는커녕 들어 본 記憶마저 나지 않을 정도라고 그 方面의 한 研究者는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筆者가 收藏한 資料 가운데 韓國의 戲曲研究에 一助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에 書藏에 死藏시켜 두고 있는 것보다는 그 方面의 研究者를 위해 原文을 소개하여 資料로 提供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한다.

II

이 東廂記纂은 心齋 白斗鏞이 李德懋가 지은 金申夫婦傳을 모태로 汶陽散人이 戲曲化한 것을 다시 編纂하여 그가 경영하는 翰南書林에서 1918년에 菊版으로 出版한 것이다.

그 編纂次序는 다음과 같다.

1. 題簽……東廂記纂 例上 老艸衣署 吳世昌印
2. 東廂記纂序……敦牂之首夏月浴佛日 其友 蓮波居士也
3. 自序……歲在戊年之仲春上浣 心齋 白斗鏞 書于翰南書林 桃花雨中
4. 東廂記纂總目
 - 首卷……序, 金申夫婦傳, 金申賜婚記題辭
 - 東廂記(汶陽散人 弄題)

* 釜山大 師大 副教授

◦ 東廂記纂 卷1 才賢, 卷2 德懋, 卷3 眷澤, 卷4 福緣, 卷5 補遺

이 東廂記纂은 正祖 때의 李德懋의 金申夫婦傳을 모태로 그 以後 汶陽散人(姓名未考)이 戲曲으로 만든 것을 다시 白斗鏞이 纂輯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過程은 金申夫婦傳→東廂記→東廂記纂으로 變移編成된 것이다.

金申夫婦傳은 李德懋가 檢書로 있을 때 命에 의하여 지은 것이다. 英祖 49年(1773) 11월에 英祖가 五部官員을 모은 자리에서 婚期를 놓친 사람들을 調査해서 알리고 그들에게 宣惠廳에서 특별히 婚需費用을 돕게 하라¹⁾는 命을 내리자 많은 사람이 서둘러 혼례를 치렀는데 다만 金禧集이라는 老童과 申德彬의 딸 申氏만이 定婚을 못한 處地였는데 李承薰의 주선으로 定婚하게 되어 金禧集 側의 婚主는 戶判 趙鼎鎮이 하고 申氏 側의 婚主는 宣惠廳堂上 李秉模가 하여 婚事를 치렀다. 이 같은 좋은 일을 그 대로 버려 두기 아까와 檢書 李德懋로 하여금 金申夫婦傳을 만들게 하니 이것이 이른바 ‘金申夫婦傳’이며, 一名 ‘金申賜婚記’라고도 한다. 그 뒤 辛亥年(1791? 1851? 1911? 年紀未考)에 ‘梅花宕癡儂’이라는 號를 가진 사람이 무로하게 지내던 차 市井에 들리는 金申夫婦의 婚姻 이야기를 듣고 심심파적삼아 ‘弄筆作劇’하니 ‘填詞一日하고 讎校一日하고 臚錄一日, 하여 3日 동안에 完成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幸有看官이시거든 勿問事之或訛하며 勿問文之爲何體裁하고 勿須問作者之爲誰其而只消閑으로 爲用則亦可爲半晌之助云²⁾

즉, 이 책의 訛誤, 體裁, 作者를 묻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만 한낮의 消閑거리로 쓰이던 다행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消閑거리로 金申夫婦傳을 戲曲化할 때 그 樣式은 中國의 ‘西廂記’를 모방하였고, 따라서 그 이름도 ‘東廂記’라고 하였다. 여기에 東廂記의 著者를 ‘汶陽散人’이라고 한 것을 보면 위의 ‘梅花宕癡儂’은 同一人

1) 辛巳, 上御集慶堂 召見五部官員 命婚嫁時人成册以奏 使惠廳特給助婚之需 (英祖實錄 卷 121) 影印本 44卷 p. 466 下

2) 金申賜婚記題辭

의 異號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東廂記는 正目 4項을 내세우고 第一折~第四折까지 金新郎과 申新婦가 緣을 잇고 定婚하여 婚禮하고 東廂禮까지 베푸는 과정을 劇化한 것이다.

正目 4項은 다음과 같다.

窮措大는 南洞竊歎하고 才賢
老處女는 北闕微聞이라 德慧
諸尙書가 西城主婚하고 眷澤
好夫婦 | 東廂感恩이라 福緣

第四折에 신랑 다루는 광경은 지금도 갓 장가온 신랑을 다루고 있는 경현에서 볼 때 뛰어나 흥미롭고 친근감이 가며 우리의 婚俗의 一面이 선하게 나타난다. 더구나 마지막 부르는 노래인

“低乙氏古羅，鳥乙鳥乙氏古羅，的許自 低乙氏古 丁低乙氏古 於我聖恩伊呀
伊乃八字鳥乙氏古 鳥乙鳥乙氏古羅”

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근감을 준다.

이와 같이 汶陽散人이 金申賜婚事實을 消閑거리로 戲曲化한 것을 翰南書林主 白斗鏞이 그것을 다시 編纂한 것이 東廂記纂이 된다.

이 東廂記纂은 東廂記의 正目的 主題格인 才賢, 德慧, 眷澤, 福緣으로 나누어 그에 해당되는 人物의 傳記를 모은 것인데, 4項目을 각각 1卷으로 分卷하고 第5卷에는 補遺로 되어 있다.

卷一 ——才賢
卷二 ——德慧
卷三 ——眷澤
卷四 ——福緣
卷五 ——補遺

卷五의 補遺는 다분히 小說的 話題가 될 만한 傳承民談들이 收錄되어 있다.

이리하여 이 東廂記纂은 金申夫婦傳→東廂記→東廂記纂으로 傳承의

來歷을 갖는 文獻인 것이다.

Ⅲ

여기서 우리가 戲曲이라는 側面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汶陽散人의 東廂記가 對象이 된다.

이 汶陽散人이 누구인가는 未考한 터라 後日 이 方面의 관심자에게 미루기로 한다. 이 戲曲에 對하여 처음으로 論及한 趙潤濟 博士는

內容은 재미있는 것이지만 演出을 爲하지 않는 作品이고 따라서 참다운 韓國의 戲曲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직 그 내용의 이야기나 들을 것이다.³⁾

라고 하여 참다운 한국의 희곡이라는 뜻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論評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筆者가 굳이 原文을 影印하여 붙이게 된 所以는

1) 朝鮮時代의 戲曲의 作品이 稀貴하고 또 中國戲曲文學의 영향을 입었다면 그 수용과정에서 어떤 태도, 어떤 方法으로 우리化하였을까 하는 영향론적 모색이 있어야겠고,

2) 어떻게 이것이 戲曲인 作品이라고 할진대 이에 대한 그 方面의 관심자들이 한 번쯤은 훑어 보아야 할 가치있는 資料임에 틀림이 없고,

3) 또한, 거기에서 加纂된 東廂記纂에 收錄된 人物의 傳奇 또는 傳記性이 小說的 話素로서 우리들의 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東廂記纂이 이 方面의 研究者에게 提供됨으로써 中國戲曲의 韓國의 受容과 展開에 대한 研究에 一助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한다.⁴⁾

3) 趙潤濟, 韓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63) p. 327.

4) 여기에는 東廂記까지만 影印하고 記纂은 紙面판례로 除外하였다.



東廂記纂

湖上老竹衣署



東廂記纂序

書之能移易性情也。且變化氣質。可捷應梓也。速傳郵也。나學者。一不可以不慎也。라
 故。豆饋水滸傳。則思傑士豪客。에。一套爽快也。且讀金瓶梅。則思嬌妾美妹。에。萬種曼娜也。
 叶氣。一激昂也。며。魂이。漸淡也。니。나。究其實也。면。即盜耳。오。淫耳。라。奈之何也。不峻斥。而反
 歸焉哉。叶。此類書也。有志之士。一不惟不著眼。拾齒。라。亟宜毀之。裂之。焚之也。叶。俾勿汙青
 箱牙。毀之。可也。니。라。夫。何挽近。에。猥雜淫褻之小說。이。盛行也。叶。稱以書籍界。라。나。便是
 人々。著作也。오。家家。鑿梓也。叶。不數年。에。糊裝。繩帙。이。幾與木。竟齊矣。라。彼一時之食視者。
 一始出於。蠅頭微利。로。藉以糊口之計也。叶。終不料。蠹蠹之害。一及於。千千萬萬個人。이。로
 다。由是。而文益。衰。裝也。且俗益。滌。靡也。리。나。惜哉。一。저。白君。心齋。之。大隱者也。라。家藏書。一
 仲。二。四。也。叶。談笑。에。必於是也。며。飲食。에。必於是也。며。起居出入。에。必於是也。叶。未嘗。須臾
 離也。나。雖曰。不文也。라。도。人。必謂之。學矣。리。라。故。도。多費。翔。格也。叶。不斬。壽。稟也。且。信余
 之言也。叶。問。嘗。就。質。이。러。나。頃者。에。以所著。東廂記。纂。으로。出。示。而。請。校。正。이。어。는。初。以。病

東廂記纂序

東廂記纂序

且。眼昏。으로。辭。러。나。屢有。書。想。키。로。重。違。其。意。也。叶。久而。後。에。強。焉。也。나。披。閱。이。才。數。十。頁
 에。乃。整。襟。起。坐。而。言。曰。余。一。平生。에。不。解。讀。藝。詞。瑣。記。也。叶。但。聞。之。也。叶。도。輒。感。頌。이。러。나
 今。見。是。纂。也。나。不。覺。怡。然。이。라。上。稽。國。朝。也。고。旁。據。野。談。也。叶。俱。有。確。據。也。고。爰。作。便。覽。也
 니。可。知。心。齋。之。苦心。矣。로。다。書。凡。六。卷。이。나。首。列。原。記。之。重。前。人。文字。也。오。次。分。原。記。之。正
 目。也。叶。纂。而。爲。四。也。니。曰。才。賢。은。英俊。良。莠。并。道。德。弘。儒。也。오。曰。德。慧。는。性。行。貞。淑。也。고。知
 識。明。敏。也。오。曰。骨。澤。은。施。惠。字。恤。也。서。고。幹。事。成。就。也。오。曰。福。緣。은。神。佑。靈。異。也。天。定。湊。合
 也。라。末。附。補。遺。之。概。多。闕。漏。也。叶。未。盡。探。取。也。러。라。原。記。一。名。曰。東。廂。은。傲。西。廂。而。作。也。나
 然而。更。套。俗。諺。이。荒。駭。沒。鵠。也。叶。驟。看。之。에。不。甚。了。然。이。러。나。至於。逐。節。懸。吐。而。風。發。一。活
 動。也。叶。曲。盡。其。事。狀。也。니。信。乎。第一。才。子。에。換。手。傳。神。之。文。法。也。라。使。人。으로。可。以。拍。案。驚
 奇。而。若。無。心。齋。之。纂。이。면。不。過。隨。之。於。戲。場。副。墨。而。觀。止。矣。리。나。安。能。使。末。世。之。庸。男。愚。婦
 로。警。醒。勸。勵。也。叶。教。五。倫。也。며。道。百。福。哉。리。오。或。이。云。體。裁。一。不。類。也。나。不。當。曰。東。廂。記。纂
 이。요。當。曰。金。申。夫。婦。傳。纂。이。可。也。라。나。其。言。이。亦。復。佳。로。다。第。今日。에。遇。心。齋。而。始。得。刊
 布。也。叶。有。裨。風。化。也。나。豈。非。東。廂。記。之。慶。幸。歟。叶。使。汝。陽。散。人。而。在。면。盍。討。案。一。大。醜。也。叶

與書林諸益으로 醉飽而兼頌主人之德이 리오오오니 心齋一觀然不已어는 於是乎序而贈之오니 時와 徒維數拜之首夏月浴佛日에 其友蓮波居士也러라

自序

夫京城은 人物之總會處也라 東方이 欲明을 연 聲沸騰을 이 氣紛郁을 이 日中而備을 고 至昏便息을 이니 明日이 亦然을 고 又明日이 亦然을 야 泊乎三萬六千日而亦然이라 或 祁寒盛炎과 甚雨積雪之際에 稍休歇을 이니 其間이 亦不過晷刻이 러라 寺洞은 處中央而 通南北之線을 야 控三市을 고 運九陌을 이니 從大路而過行者一 貫京城之全部也라 余于 是에 開書林이 將近十稔을 이니 彼一或知而歷訪을 야도 全昧其姓名을 고 不顧而徑憂을 야도 多慣其面目을 야 如是 閱人而迎送之을 이 量指不勝數矣로다 凡 貴富顯賤과 老少 婦幼와 強壯健頑과 矮孱瘠弱과 駮乘乖戾을 고 荷擔負戴者一 不下幾十千億이 로되 觀 其貌에 度一個肖似을 이니 其心之不同을 可知로다 若乃 豪客之珠履貂裘一 銀聽이 耀日을 고 且 游女之粉白黛綠이 關擲一 飄風을 이니 足令 凝人으로 見之에 心驚美而魂歸銷을 고 至於 賈博街技을 이 吹簫丐錢之類而 極矣라 余意에 儻或有 忠信魁奇之士一 蹈晦于其 中일새을 야 每見人에 輒欲 諶而與之語을 야 叩其道德經濟之所 蘊抱而 願學焉이라 가 既而 深念을 이 汲汲求名之地와 擊々 謀利之場에 奔走馳驚을 야 擲而後已을 다 가 甚則

第四卷

福緣 李縣令公麟 勿齋孫時孝 盧蘇齋 東岳李公 海雲若鄭孝俊 斑貢 星居士 李萬男

第五卷

補遺 盧木飯 朴孝恣 會大司諫李通 西平韓浚廉 李城制顯達 會公產廉 金判院李誠 趙相泰儀夫人 樂山人吳某 趙復興府 冠紅粧 梅花 禹兵使夏亭 巫雲 安東權進士 鳳山武弁 北關御史

東廂記纂卷之首

嘉林 白斗鋪 建七 纂

金申夫婦傳

金福集은慶州人이니縣監思重의庶孫이오申氏는平山人이니德彬의庶女也라福集
에年은二十八이오申氏에年은二十四니俱才且賢이나顯甚貧하야人이不與之婚嫁
러니 上之十五年辛亥春二月에 上이憫士庶貧窶하야男女婚嫁를或不以時하야
勅京兆五部로勸成하되期遠者는趣之하고官助需資를錢五百과布二端하야月輒
以聞하라하시니時에福集은與沈氏로約하고申氏는與李家로約하야雖業已受官資
하나姑未之定期러니五月晦日에漢城府判尹具稷이奏하되五部之人이貧而娶婚期
者를今盡勸成하야스오나唯西都申德彬의女는縱有官資하야粧奩이辦具이오되彼
忌六月하야期在孟秋이오며金福集은始與之約者를謂以門戶不敵이라하야恥不以
女로女焉이라하되이다六月初二日에 上이諭曰予念五部의多穰曠하야勸以婚者

一 無慮百數十人이고는唯西部二人이禮未克成하니鳥在其導天和而諸物性也리요
 事積齊始오政期勉終이니其可勸德彬을야更定吉期하고禮集은亟求佳偶을야戶曹
 와惠應으로各助贈을되較前豐饒을야俾完好事을라하시니於是에西部令李承薰이
 馳赴京兆하니主簿尹鑾이曰纔聞李家一背申氏을고已與他人婚矣라하시니承
 薰이愕然曰今奉 上諭而申氏婚期를顧無所趨於前日之奏하시니若是矛盾이면實有
 所歸라其將奈何오判尹以下一相視矐然이라承薰이曰下官이竊念禮集은慶林相公
 之後오申氏는吏曹參判之裔니俱是華閥이오且其年이數하고其貧이同을야所遇一
 相類한데리況又同日에上慶 乙覽하시니此는天所定也라蓋與相通을야以成熾匹이
 리잇고滿座一擊節을야俞曰幸甚이라不亦美乎아屢이遂勸部令及主簿을야爲兩家
 之媒하시니於是에承薰은詣盤石坊禮集之家하고鑾은詣蟠松里德彬之家하시니門俱无
 扉하고屋簷이垂垂하고椽露穿日을되畫影이過午로獨厨烟이蕭瑟이라賓主一席
 地而語을시承薰이宣 上所諭하고仍言與申氏로約婚할便宜하시니禮集이俯首逡巡
 이라가久而言曰禮集의所以未有室者는坐貧且孤也라何幸沈氏一許字하시기로謹受

官資을야아려니不料見棄을와自期를至老白首에無所偶하고竊又悲不能奉老母러니
 今承指教을오나非不慰謝而萬一彼或不從이면即禮集의命數之喻也로니다鑾이見
 德彬을고如承薰語하시니德彬이愀然曰爲人父母을야使女子로晚晚親事을야式至于
 今을고且與人約이라가人先違我을하시니夫誰之尤리오至荷 聖諭一鄭重을야優惠資
 裝을시고諸公이良苦을야射行媒灼을하시니感激之極이實欲愧死로이다金君은名家
 子니敢不許以爲婚이리오是時에承薰과鑾이大悅을야互相通報을야承薰은即使府
 吏로傳庚帖于德彬을고鑾은勸德彬을야揀吉日을하시니期在十二日이라遂申報于京兆
 府호러府一聞于 上을나 上이喜曰匹夫匹婦一爰得其所者一古來幾許而未有如
 金申에機會湊合이非常可喜을如此之奇也로다하시고論戶判趙鼎鑣과惠應堂上李
 秉模을사曰兩家婚禮를托于兩卿을나趙는祝禮集을猶子也하고李는祝申氏를猶女
 也을야亦各爲兩家을야代撰婚書을고凡厥綵幣冠履釵環과裳襦衾褥과敦盃盤匜와
 酒醪餅餌와屏帳紋席과書燭香奩와粧奩脂粉零瑣之屬과暨鞍馬徒御을以衛以儀之
 具을莫不畢給을야乃所以信王言이其悉心辦備을라하시고仍命內閣檢書李德懋

사야曰如此奇事들可無佳傳이리오爾其筆記一通을야爲金申夫婦傳을야以奏을다
 사시니라十二日鷄既鳴에禮集이卷桃紅縞紗와雙文藍絹各一端을야交纏朱碧同心
 絲을야納于髮函을고著葳蕤鎖을나裹紅襪襪을고四角에會結方勝을고上書謹封을
 야乃送于申氏之家을나其納幣之誓에曰

昭代에沐二南之化을나匹夫匹婦을吉日에結百年之親을나宜家宜室이라伉儷을
 莫非天定이오나造化는別是 君恩이로이다僕之某親某는幼而孤貧을야居然老
 大라幸逢外無曠之賊世을야縱有周媒氏學婚을오나顧此早失怙之窮人을誰憐陳
 孺子未娶오릿가竊聞令愛는長於寒素을고教之婉柔라深閨에執絲枲之工을나已
 自床前之補綻이오貧家에乏粧奩之具을나尙遲門內之施簪이라荷我 后發政
 施仁을사시니而有司承命勸嫁라 聖王이制爲嫁娶을사시니政有當先이오男女
 願爲室家을나時不可失이라迨五部婚媾之告記을야獨兩家子女之愆期라氷上昔
 夢이不諧을나佳期一蓋爾有待오目下奇緣이自在을나良偶을何必他求리오晚晚
 之年紀一與同을고單寒之門戶一相敵이라 恩出詔命을나雖在兩美之必成이오

나貧不聊生을나何由萬事之俱備오릿가 唯重辰에曲垂矜念을사俾兩臣으로分
 主婚媾이라若自己子을나娶體字而育之義오謂他人父을나爲憐窮無依之身이도
 소이다盛德은卽萬世罕聞이오嘉耦는爲百代異事라魯孟と挹泰和之氣을야導迎
 休祥이오牢筵에飽饜子之私을야歌詠 聖德이라幸逢是月을야邦家一膺萬年之
 休을고獲陰明時을야士女一合二姓之好다謹遵儷皮之禮을야爰趨鳴鴈之朝을노
 라

戶判趙鼎鎮이製라

答婚書에曰

匹夫匹婦得其所을나萬物이遂情을고競瑟鼓琴樂且和을나二姓이合好라摠造化
 力이오愧父母名이로소이다僕之女는以封非姿로過標梅節니라家計一徒立四壁
 을나顛倒紫鳳之紋이오笄齡이更踰甘藜을나晚晚乘龍之喜라幸際周文之化을야
 擬卜朱陳之緣이라聞婚媾之不時을사遍 命洛陽令勸助을사고坐資粧之未具라
 나至煩京兆尹陳聞이라和氣周於擊羊을나執非 君賜여旭朝晏於嚙雁을나乘緣

我貧이라方 聖人이 軫終始之恩을 시와 適兩家一成媒妁之約이라 飭教鄭重을 시와 期欲速而無遲오 物采光華을 시니 禮孔嘉而克脩라 錢米布帛은 地府愚局之爭來 鑰오 鞶帶銀環은 高門盛族之不是 過라 貧富一幻造化之頃을 시니 今辰何辰이며 寤寐一結 頌祝之忱을 시니 千歲萬歲을 시다 永惟慶剝之報은 只在室家之宜라 民樂年豐을 시와 共 登仁壽之域이오 夫和婦順을 시니 長固修齊之治를 오리라

宣惠廳堂上李秉模一撰이라

日中이 禮集이 既洗鹽梳櫛아 掠髮刷鬢을 고 顯影習容을 시와 善閃紗袍과 纓犀帶와 烏帽 外 麕靴을 고 坐白馬鑲金鞍을 시니 肩疎背立을 고 色矜莊을 시와 不遊目을 고 徐徐而行을 시니 鴈夫는 在前을 고 乳媪는 在後을 시와 靑紅紗燈이 對對前導을 고 京兆五部皂隸一左掖右 護을 시와 魚魚雅雅如也러라 及抵申氏之門에 下馬奠雁을 고 入醴席을 시니 申氏一靚粧을 시와 翠綳金細齒步搖을 고 被百子齒齒綠紅衣을 고 遮面珠絡扇을 시와 交拜을 시니 僮僕秩 秩然을 시와 無差러라 粧姿一引紅線香盃을 시와 三醕之을 고 呢喃祝告語에 夫婦一起入鋪 房을 시니 兩家隣里一相與歎詫日 金君은 年益壯에 操心이 益堅固을 고 申氏은 婉而雍

容을 시와 盛儀豐福으로 一朝에 至尊이 造命을 시고 宰相이 主婚을 시와 儼然이 合爲賢 夫婦을 시와 恩光喜氣一充溢門巷을 시니 彼違約者一自絶이 其亦天也로다 蓋其所居坊名 是盤石이오 里號는 盤松이니 佳兆一非偶然이라 可卜其壽考福祿이 滋茂鞏固을 시와 如 石之盤과 松之盤也云이러라 臣德懋一曰自古人主之心아 與天相通이 豈非然哉아 和 氣一致祥이 導之在上을 시니 何哉오 今我 主上이 對越上天을 시와 幽者는 斷之을 고 僻 者는 疏之을 시와 閑覆涵濡을 시니 無物不遂라 歷驗是 歲春夏에 民或望雨러니 施以仁政 을 시니 不待龍雲을 고 雨輒隨而下을 시니 夫金申之媾一始定에 雨又沛然을 시와 不移晷 刻을 시니 天人之孚感이 若是其捷也로다 故로 朝野一誦之日 至治之世라을 시니 蓋三代之 所以祈天永命이 不過曰 導揚和氣而已라 豈不休哉아

漢城判尹具讓 字는 雲之요 號는 龍淵이라 綾城人이라 判中樞允錫의 子니 英祖辛巳에 文科을 시와 歷三司 官至兵判을 시니

西部令李承燾 字는 繼卿이니 平昌人이라 奉判東都의 子니 進士로 官至縣監을 시니

主簿尹鑿 字는 南原人이라 縣置東柱의 子요 新谷榮의 玄孫이니 官至郡守을 시니

戶判趙鼎鎮 字는 士受니 豐壤人이라 校理重福의 子요 判教事 禮命의 孫이니 正祖丁酉에 文科을 시와 歷 三司을 시니

惠廟堂上李秉模 字正孫則이오號正齋李秉模水人이라廣의子오投齋文忠公繼夏의子孫이다
英祖癸巳의進士文科官이歷副提學兵戶判官고 正祖甲寅에拜相官이官至顯議
政官니諡是文肅이다

內閣檢書李德懋 字正懋官이오號正齋李德懋水人이라全州人이라府使聖港의子오茂林君善生의十四世孫
英祖癸巳에拜檢書官官이與朴齊家外柳得恭과徐理穆오世稱四檢書官이
官止顯監官이다

金申賜婚禮題辭

忙을固不可耐이니와閑도亦不可耐로다今若輩一人於室야使目無見하며耳無聞
하며口無道하며手足無所役케호면躁者는不曠오靛者는三日이리니是故로寧守三
年寤이언정難爲一日閑이로다閑이固余之所病이니人皆然乎哉아否아歲辛亥六月
에炎而霖야야人不堪其苦일서欲治舉業則無窓伴이라難自強이오欲事古文及詩則
非徒才不逮라與亦漫矣로다欲看書則睡輒至호니欲睡則便有數十蠅이舐睡吮鼻호
야不可得夢이라欲起而走호니雨且泥라尼不得出호야其勢一不可奈何호니亦不能
自保其不狂且病也로다小溪一歸自市門호야說所聞호니甚新이라日奇哉호盛矣라
吾一可以已吾閑이르다호고起호야弄筆作劇호니一篇에覺手稍開호고眼稍措호야

凡嶽詞一日호고雜校一日호고臆錄一日호니所消一爲三日閑이라是三日은無雨호
無暑호無蠅호니在余에所得이亦多矣로다幸有看官이시거던勿問事之或說호며勿
問文之爲何體裁호고亦勿瀆問作者之爲誰某而只消閑호로爲用則亦可爲半晌之助
云爾라梅花宕癡儂호題호노라

東廂記

正目

窮措大南洞蘇歎고

老處女北陶徹聞이라

諸伶書가西城主婚고

好夫婦東廂感恩이라

第一折

汝陽散人



才賢

德慧

眷澤

福緣

金生이上고되大明天地에無家客이오太白山中에有髮僧이로다賤生의姓은金이
 오名은禮集이오家世는慶州金氏白邊이로소니冠冕이不遠고簪纓이相傳키로
 洞內上下들이皆以秀才로呼稱하나但因家計倒裂也似貧窮하야三旬에九食을
 고十年에一冠을니正是樂貧의生涯라城底小屋이蟹殼般也窄窄이로다俗談에艱

難이醜龍泉이라하더니果然俺이艱難所致로早년에失學하고中年에無業하야非
 文非武요無才無德으로居然히今年이二十有八歲이오니因此하야世上所謂文家
 라하는가손難於上青天이라다人生三十의明日再明이도獨尙未免道令之稱하니
 南大門을成造의하던姜林道令과長安日者鄭道令呵늘雖是俺에自己事로思量來
 하야도可憐也오可憐也며可笑哉요可笑哉로다

(賞花時)(金唱)世上人間天下中에窮也窮寒이誰最窮이런고一間屋이阿房宮이라
 住着里門小洞하야單隻漢이條條紅이로다

今月이是那個月인가眠兒裏에空花一擡擡하고綠莎堤에新葉이尖尖이로다亂芭
 子노鳴也鏗鏘하고從地理鳥는三丈浮로다三年陳의馬皮兒가烏乎籠가祇乎籠가
 老道令心事一最是難耐로다

(後)紫燕은雙栖西復東이오粉蝶은翩翩飛雌與雄이라忽見桃花紅하고思量種種하야
 擡頭怨春風이로다

歎科라揮歎科이니若嘆
而無音이다三神帝釋이指點하사俺을出來을這時에口也도似人하고眼

也도似人하고鼻也도似人하야凡諸一應俺身上에懸來의物件이件件也似人하니
 何嘗有半件이라도不及人處리요만는只這婚姻一事에는不及人하야直到了九十
 에三分이五六十에半截이도獨所謂妻子息滋味라고는未曾見了하니萬古天下에
 寧有這般의身世麼아俺이是個兩班的緒餘로若干이나聞古聖賢言語호니男子一
 生而願爲之有室이라하고一妻一妾人皆有之라하얏는디大抵長安八萬家에無
 論他班戶民戶하고似俺처럼三十未娶의가幾個며幾個런가且况近來는早婚이成
 風하야서世家大族은除却了하고雖閭閻百姓이라도稍喫了飯塊가꺼더면十五에
 入丈家하고十六에得正妻를無人不然하디라俺이嘗看來호니

(點絳脣)多少童蒙이花轎繡鞋으로相迎送하야阿只氏는十五에乘龍하고道令主는
 十四에纏鸞鳳이로다(混江龍)況是妻家尊奉하야新郎에好事一政丞同이로다被却
 紫紗章服하고騎의白雪花驄이라斗里黃囊이垂繡帶하고僧頭青扇이擺香風하니鴛
 鴦并宿綠波深이오桃花早結紅心動이라似俺의호論其年歲하면合做公公이로다

這般說話는都是他人家事니驢子兒에講了說이也無益이로다如俺은且講俺에自

家人丈家言方略哩라라千思萬想言야도怎般的妖術도可得一個阿只氏來言리且俺이嘗聞來言니古有一個老道令이俺의般처럼窮困호되供養一個彌勒이라니那彌勒이慈悲他老道令言야現夢言야授了二字真言호되能附了個物言고離了個物케言니那道令이因此言야致富言고因此言야得入丈家了隣厝의兩班이라니百姓이嫁女迎婚호되늘那道令이見道關氏言고又用了真言奪取言야做個小妾言야다言니如俺도得了那真言時면萬事를除了言고急先向那關氏身上에粘了俺이면也豈不好麼야奈此間에沒一個靈驗的彌勒가個前에此中媒言亦多曾做的라言니一個常漢이年紀一極多호되要中媒的通婚이어늘性說道新耶은更無可論이라家世호되賽了張良이오年紀호되恰滿十八이니正是好個新郎이다라那丈人做的가聽得大悅言야完定婚姻이라니既數日에那中媒一復來言야說道仔細探來호되夸這新郎에年紀가不是十八이오是二十四라言니爾一不嫌晚麼야新婦家에서信他을做鍾閣支棟이라니及了奠屬言야是個恰滿八十的老常漢이어늘那丈人이如何不憤이라오大罵嗚中媒道你一這碟殺的兒子아亂敲木毒的女息漢아呀야如何花言으로騙

了俺麼야那中媒一呵呵大笑道俺이何曾一毫一毫差了며半點兒을錯道麼며毫髮些나騙爾의아張良은是個五世相禱이니向所道家世호되賽了張良이라호되道是父祖來로常漢이오十也一八이며二十也一四는是個八十이라호되나你眼見麼처럼你耳聽麼當時節에耳孔裡에釘了緊馬棧麼야那丈人이雖是切痛言나是個還退不得의興成이라亦復奈何오俺도如有這般中媒言야爲俺效忠時면俺에坐地가雖不及弘文校理와焚香翰林과吏曹佐郎言는家世나豈不賽過了五世常漢이며俺에年紀가雖非阿只新郎이나若較他九九八十에少一의老常漢이면還是個新生的道令主니俺이豈不是好新郎材木麼야歎科라揮句這常漢은想是個富者了로다如俺은一盞兒도沒出處言나有甚中媒一看甚上德言라고爲了俺言야宣力麼야終是這夜又兒에稅米磨鍊이며這繩甲飛에羅祿磨鍊이며鑿器匠士에數計로다此將奈何오呀야

(金菊香)半成還甲白頭翁호되君子好逑言猶未逢이라何等妻官이這樣凶인고心火一焦言야長歎息이又生風이라다(粉蝶兒)環顧家中言니冷蒲團에誰與伴夢이며

短牛衣喜誰與裁縫言且漫向方君相思病何症情何危重言도다若撞他月下仙翁言면
扯斷他紅線言고打他青腫刑言리라

俺也——不是北漢山城老長首座也俺也——不是壯義洞知事令監翁인가這是甚麼八
字麼아耐過了亦已多年言니未知과라從此去了言아又耐了幾年苦行이라方
見了西洋世界麼아歎科라推고不知那裡住的大功德阿只氏아你——既要做俺의
配匹者어던緣何事言아消息也——亦頓絕了오此不可做的情景麼로다啜라上看了
言고下看了言고四面八方으로周看了라도那裏에有病身八朔의生女言아與俺做
了個窮漢子의妻麼아呀아柴門外에有人來索者로다是誰오出門醮科라呀아原來
洞內任掌이到了로다你——甚麼事로叫俺麼아任掌이金道令아火速히將自己姓名
과本貫과年歲言아錄與小의麼아다金이甚曲折고任의官家甘結內에老道令에
有若無의物件을置于他言아沒用處言니——成冊後에都割了言아付與如俺에喫
素酒의洞內任掌言아做個生醮按酒者라言니다金이休了面弄言라這眞實收成冊
이甚緣故오任이漢城府甘結內에五部內各洞老道令을成冊言아報狀後에自官家

로助婚言아不多日內오完了婚姻者라言야스니好也的로다好也的로다老道令이
丈家去了言時節이니不可不償了俺을好酒一盃哩로다作言아受名帖收去科라金
이曠句 近來에夢兆——頗好言고今日食前에不知那裏住의鶴이向俺也言아啼了可
可言더니果然今日에聽得好消息이로다

(端正好)聽分付言니還如夢이로다今朝也에吹了何風인고便同四柱單子送言아已
是春心動가

朝家에서要做言시라면豈有做不得의理리요今番에는俺也——丁寧히得入丈家言
리니不知怎樣阿只氏가除得俺의袴也言아來了로다且待 朝家處分哩言리라下
라

第二折

吏——上言되堯之乾坤이오舜之日月이라國有風雲慶이오家無桂玉愁로다小人每
는中部南部東部西部北部五部書員의——便是로소이다月前漢城府指揮內에敬奉
聖旨言외助婚次로五部內에老新郎과老處女를各別搜所聞言아坊坊谷谷에死一

人遺漏을 야成冊來報者라함은 시기로小人每가即時에頒布各洞을 야各該洞中在任掌과眼同搜閱後에尊位兩班이報狀當部하고當部에서修正成冊子을 야精速報狀于漢城府判尹大監을 야都合計數하니某部某坊某契第幾統第幾戶에老道令에姓某名某며年甲幾何며本貫某鄉디오老處女某氏에父某一年幾何며本貫某鄉디라을 야已上幾百幾十人을人啓後에 朝家處分內에搜覓可合處을 야催促過婚을 되自戶曹로新郎을每名에布錢匹兩錢幾兩이오處女도每貞에布錢匹兩錢幾兩을婚媾을扶助者를 라함은 시니這是我 聖朝에無前賊德事로다近來에我國盛德事一不知其數나略畧히大綱說來를 리라向來慘凶에都城中許多乞兒的兒子們이萬一에非字恤之典으로新倉賑恤則怎得一個女息에生活麼아此亦盛德事으로向來北道에連年慘凶時節에萬一에非 朝家에서極力賑恤이시면北道百姓에活出也一無路리나此亦盛德事으로上년에平安道漢子一空一道上來時에一邊으로手牽了犬項을고一邊으로手挈妻子을 야顯合了那單尾처럼慕華館으로陸續兒流來할 때萬一에非鐘閣 殿座時給糧下送一欸이시더면那個女息을이得了生還故土麼

아此亦盛德事으로上年六月分以後에刑漢兩司와外方八道에罪人の竄配徒流秩과笞杖收贖秩을一齊兒白放了을 야았스니此亦盛德事으로丙丁戊己庚辛于今十六年에田稅還上貢布를蕩減아不知爲幾百萬兩이니此亦盛德事라此事也彼事也에盛德事가一不足이어나와至於今番에老道令과老處女에助婚一欸을 야는尤是盛德事中盛德事로라你是較量來를 라人間萬事가離別中에獨宿空房이最可悲라方春和時에草木이羣生을고花也滿發을 디蝴蝶兒는翩翩하고金鷄兒는栗栗하고這時節에興甚恒甚을 는心事를置着無處을 야悲痛兒一沒了指向이라上太息을 다가下太息을 고低一聲太息을 다가長一聲太息을 야直令人消了肝腸을 니便是感傷和氣의大棒事어늘今類 朝家處分을 야老道令은丈家去了을 고老處女는嫁家去了을 야長安大道上에新郎行次가犬樣亂走을 니這豈非盛德事中에第一個盛德事麼아 (錦上花)吏鳴)衛莫道夫婦因緣이天上來을 소指을 니天外又天이人君이是已로다 恁來合이隨人이오婚媾이流水라을 今日分에女嫁男婚은朝家門에祝民如子샀다 若非 朝家處分이시더면渠們이直到了彭祖同甲을 야唐白絲條으로白了豆豉

難見丈家味기르다小一上德也則上德이어나와凡世上婚姻을下的下品으로過
了기야도尙不下百餘金割吞了기노디這個們이婚姻을只將他戶費에서所費기노
布匹錢兩기야怎得經紀了麼야想來견디多不成模樣기르다大一似這不解事的
言語기聽也亦厭이로다

(後)一張禮狀函에三幅木單被로다閻氏紅裳은惜了隣里기고鴉天藍袍기貫于塵市
기야草草行過기야權停禮로以기지

雖是赤條條兩身으로白白地四拜기야도名以婚姻이라기면這便是好了事니伊間
滋味기何渠不若三千兩婚姻麼야這說話는除却了기라好了던지不好了던지는
渠每們에好了且無關俺奉行的에好了로다俺每們에職分內事는這個成冊裡에道
令기斗處女기已盡婚媾麼야你將那成冊來기야與俺으로考準者어다頭骨上에打了
一個黑點兒的는是는已婚姻이오未受點的는是는遺在的니到今은未受點의기
幾個麼야小一作기야照冊科라某坊某契에老道令某기於某月某日에某處三丈家
去了기고某坊某契에老處女某氏기於某月某日에某處로媾家去了기야幾乎已盡

收煞了로다呀야有一個了로다大一你一看他爲誰一尙今未婚了오小一南大門外
里門洞居는金福集이年이二十八인디這個기那裡去了라가尙今未盡麼야甚愚
也로다憂患也로다大一這是萬科初試에落榜舉子기庚戌年大豊年에乞兒의八字
로다

(驚驚煞)方今에高突伊는盡得新娘子기고佳山兒는併化阿只氏기디譬這神仙이天
上也去時에屋兒도亦昇기고鷄兒도亦去기고獲兒도亦至기야混家兒一沒數羽化기
되老單兒는獨自墜地기니可憐기八字라你一雖名福集이나原來未集喜로다

俺이想得了기니這個기月前에有好個婚處一在廣州地기야判尹大監이報進了京
畿監營기야好事也一幾手凝了러니那知冬至曉豆粥이酸了기고出了東大門鷄卵
兒에骨기야間言이風入이리오廣州兩班이忽出了腹臍기니監營使道도亦無奈
何러라這分明是這那道令哩로다小一俺이平生切痛的는是那婚媾에間言의라一
個間言의기向那婚媾家去了기다가中路에淹沒了大水기야到了死境이어는歎息
道囑囑句不詳기다某婚媾이今也則成了로다기니這是甚心腸麼야大一開談은且

置了고고更히細細考進者이다小作야翻冊料라呀又一個有了로다大
 是誰오小一新門外居平洞居는處女申氏一年이二十四오父는幼學德彬이니是
 個未受點秩이로다大是也라是也라這是小居平尉洞最小巷에小小飯饌假家인
 디一角中門三間草屋에居住的라可憐也로다艱難이여

〔後〕冬月明이나雪裏人嫌冷이오秋花妍이나春去誰稱美라리오一簾香愁令人服
 死是問可知로다蚤老了는면猶能室이오花老了는면尙能子이니와處女一老了
 否면奈何爾야

世上에極難底事가有三이나無形勢의虎班에初入仕오無器具의先輩에監試初試
 오艱難의處女에婚姻인디這三件事中에貧處女婚姻이尤難이로다曾前에一個老
 處女가德律히得了婚姻處야四柱單子는來了고고擇日單子는去了야婚姻日
 子가看看迫了어는那處女가不耐歡喜되猶是體面所在에十分忍住고고不得向
 人說道고다가奈忍住無路야走了廁間야야呼了犬兒야야暗暗히說道大阿야俺
 也一再明日이去了嫁家호다나犬이如何保得이리오只打一番何屈飲고나那處

女一團團야야又道大阿야俺이若說說你時면俺也一是你的女息了라호다라호나
 人情이到這時면豈非至樂所在麼야此個處女도那個처럼再明日에得去嫁家了
 호호這等新郎과這等處女를當部에서도亦無奈何라直等到自家運通면婚處自
 生야야方得婚了리니俺們이且休着호리라并下라

第三折

東一上호되十日을灘頭坐라가一日에過于灘이로다小人每는戶曹書吏오官惠廳
 書吏一便是로소이다 朝家分付內에老道令金解集과老處女申氏가終無可合處
 호야尙今自在云호나老新郎老處女許多人中에惟此二人이如此者호事不偶然이
 라非爲 朝家에서於某二人에偏施厚恩이라此亦某等們的八字所關이니申處女
 와金新郎을依處分호야仍作夫婦호되從速舉行호고其婚凡百은選廳과戶曹是板
 例備給호되一依惠堂과戶判의親子女成婚例호야着實主婚호라호신事로本曹堂
 上無沈橋趙判書大監은主了男婚호호고惠廳堂上大等洞李判書大監은主了女婚
 호호시와使成新郎新婦의의親阿爸一般호야婚書와答婚書紙를兩位大監이已將四

六儀文衣製置了하시고新郎四柱單자가往來하고擇吉了하시니那婚姻的日子는
 是個本月十二日이라今已只隔하시니兩宅婚需을星火措備하시야佛無末及者이다
 (要孩兒)幾番紅淚住春眼이런고總角衣도亦應濕盡이리라天般盛德과海般恩의로
 這婚姻을已定佳辰하시니前日呵는無衣無食貧窮秩이나後日呵는新郎新婦好事人이
 로다原父母는休擡髮하시라

惠廳白木丹度支青錦으로這婚需을勿論錢入幾兩과布入幾匹하고只從他하시야極
 品好件으로措備하시라하시니方是個는是莫非 朝家盛德이시니兩位大監이奉行
 申筋하시는底事에本意을掩每們이怎敢一毫克歇后하시릿가爲先把那外具하시야
 點檢者이다新郎에所騎馬는梨花似的白雪馬에靑靑月乃와銀葉絲唐鞍粧을捌抄
 余某가去番新納馬나新郎馬로第一擢行하시고有紋靑紗燈籠各二雙은訓鍊都監이
 오白木大遮日各一浮는一借御營廳하고一借禁衛營이오八張付는白紋地衣各一
 浮와靑邊飾을行步席은長輿車오牧丹屏風은濟用監이오麻巾도濟用監이오錦大
 燭臺二는工曹오高足床은繕工監이오香高支는司僕寺오香坐兒는尙衣院이오生

萬은京畿監營이오芙蓉香은內局이오清遠香과木紅燭과心紅燭과紅羅照와萬花
 方照과奠薦席과交拜席은各衛門과及本曹과本廳에서借送行下하시고龍頭刻的函
 支機와玉童子는賞物處이오驛夫에所着朱紗笠에貝纒과水靴子는軍門에借用하시
 고只是新婦에所乘金頂轎子는非是借用底物이니孝經橋朴生寅에所有的라出賞
 次로다

(五敘)拜薦時에易蹉跌이오踏馬時에易墜隕이오紅燭下에更詳慎이이다生前孔雀
 屏間夜호分外芙蓉帳裏春이라細細看하시야도終難認하시리르다是仙가는鬼가는夢가
 是眞가

呀嗟旬侍陪一款을幾乎忘了로다本曹와本廳과漢城府五部에書吏書員使令迺大
 房이一齊進去次리라且把新郎에服着的하시야點檢者이다草笠은已是不少了하시니
 細々涼傘漆笠兒로하고銀色苧布靑道袍에白苧布中亦莫과白苧布小氈衣에生綿
 紬汗衫이라漢布緞草綠腰帶와豆綠大緞斗里氈子에朱黃唐絲蝶襟流蘇結이라白
 苧被褥子에細布裡衣單褲子라細作白木新襪子에白苧布筒行褲과草綠唐絲細條

帶曰單縷網巾에赤玳瑁貫子와紫芝唐八絲鬃兒며靑漆皮六分에鹿皮縷色唐鞋을
 一齊準備스앗스니有甚納鼠皮脫禪衣의念慮麼라오被紗角兒烏紗帽며拾角紫芝
 色紗冠帶와一品秩犀角帶에黑鹿皮好靴子요冠帶內供은紫芝複襪衣며三臺份頭
 靑扇이니極盡了스고極盡了스오니라

〔四煞〕家貧스면服自貧이오人新스면衣亦新이라原來這個風神俊호되着道袍스니
 形容히端妙如先輩오被冠帶스니服色이輝煌似重臣이로다一口兒로難盡說스니宜
 丈人文母一口張似威匏스야倒着鹽布스리라

新郎衣服은且置了스고把這新婦에一襲스야打點者이다白苧布角支赤衫이며瓊
 光袖雙針腰帶며白苧布四幅襦子며細細北布鮭魚禪子며眞紅縐紗複裙子와藍方
 細袖單裙子와靑苧布常着裙子며上衣三勺은草綠色과松花色과寶羅色인디甲紗
 熟絹廣月紗等物이니紫芝色三價粧이오五合無竹伊과三合無竹伊며細白木襪子
 며線質紅眼錦唐鞋며娘子髻次는六鎮月子와簾頭里와銀竹節이니俗談에生前好
 事一番이오死後好事一番이라하더니生來初好事로다於余未去豆微와紅長衫

과金線縐鳳眼服裙子和眞珠扇子는這皆手母에貰物이다라

〔三煞〕鳥無羽翼이면不得文이오婦無服飾이면不掩身이라終須錦繡與花粉이可知
 白屋三間室에初有紅羅九幅裙이로다村嫗來스야休問스소一則非常은八字요一則
 無限은天恩이로소이다

新郎貧賤時와新婦新行時에下任을合用的幾雙屢아羅照差備一雙이오香童子
 差備一雙이오芙蓉香差備一雙이오紅燭差備一雙인디納采時에用的을菓
 薦時에仍用了스고新婦禮時에香下任一雙은藍裳에紫芝亦古里요錢燈下任과食
 飽下任이爲一對스야俱兒孩下任인디三輪粧豆綠亦古里에紅裳이오函下任一雙
 은玉色繪粧亦古리에藍裳이오幣帛下任一雙과體下任一雙은俱草綠繪粧亦古里
 에藍裳이오兒孩下任一雙은七寶簪頭里와草綠唐衣에紅裳이오道土絡唐只스고
 乳母라手母와房直等에所著長衣와所騎鞍馬等物은預爲待令스앗다라且把這新
 房所入스야點檢者이다綵畫花鳥寢屏에花紋席燈每며方紗袖草綠兩衾에繡花袖
 眞紅領子와土綿袖紫芝襦衣며多紅後的花鋪屏와圓面雙鸞은新郎枕이오方而九

鳳은新婦枕이며라男女瀾江과男女梳貼이며廣細布五尺은手巾次요飛輓筒과蒼
 崗木이며黑漆에酒金을婚書函에金剪紙와毛緞袱와粉紅緞袖袱로內外袱며溫紋
 襪와紫芝襪며黃漆籠槐床이며倭朱紅三層鏡臺에倭畫龍器로鏡臺所入이오鄂斯
 羅金匣鏡이며鎔大地와鎔銀架아니新房所入이亦自不小하더라

(二) 熬) 枕來에初疑我腦門이오被來에猶疑我布種이오飯來에又疑我西山梳라리라
 牧丹屏風은豈非今日初相見이며金匣鏡은果是平生所未聞이로다君演認하라這應
 是瑤池世界며又或者畫裏神仙인가

凡事를幾皆停當了하얏스니這宴集一款을亦不可草々로다奉常寺熟手幾名을星
 火招來하야使個辦備者어다蒸餅과引節味와權母와白雪糕와松餅이며卵麵과酸
 麵이며油醬果와紅椒子와中白桂와茶食과兩色蓼花에各色剛了이며魚鰾頭와魚
 菜며狗醬과軟雞滿이며魚膾와肉膾와陽地頭熟肉이며剪肉花와花藥訥飲伊며猪
 肉白肉과雜湯과蕩平菜와花菜며橙果林檎柳杏紫桃生梨黃栗大棗眞蔗西瓜니這
 一般을都食熟手하야進排하야라呀야繡八遮을不可不插이니라這便是使道盤床

에蝦蟆兒大卓一般이로다

(又) 平生飲食이只知粥與飯이니未嘗一匙하야도腹先滿하리라半升黃粟은新郎袖
 요三酌紅絲는手母樽이라頓飯을休遮變하소這大卓을此生에難再焉하리라

今則木石이俱備하니所欠者一惟上樑文이라하더니所欠者一惟日子一未備하니
 安排婚需하야待了者어다常談에道하기를處女老는福餘澤라하더니果然이로다
 這處女가若是早婚去了하더면怎得了這般好事麼아這是天生八字에合有晚來的
 福이오又是 朝家盛德이古今無比하시와匹夫匹婦가皆得這般異數了하니壯의
 로다壯의로다

(收尾) 前宵春雨中에百花一齊得綻이라流向人間하야川澤이皆充滿하니是 君恩
 大小오오면東海一猶有這畔이로다

第四折

三生一率小奚上하되三年大旱에逢甘雨요千里他鄉에見故人이라花燭洞房無月
 夜요少年金榜掛名辰이라하는這首詩는是個古人에四喜詩니這四件事는儘是人

實是沒有開的。라大！笑科라你！騎馬去到了妻家時，馬的頭先入麼？你的頭先入麼？金이馬的頭先入了。라衆이大笑科라大！你！直從下馬時，去到了合官時，你！一通仔細，招將來。라金이死了死了，乞了，且德分德分，乞了。라大！你！全身都是。朝家德分이，你！又生心去，你！乞了人，德分麼？重打者。다三！打料라金이，哎呀！哎呀！俺！騎了馬，去到了妻家，去！奠廟，去！少退，去！再拜，去！앗，로라

〔少梁州〕(金唱) 遮日屏風奠廟處，拜鞠躬興去，你！俺的！再拜致精誠，去！低頭，去！拊拜了我朝廷，호라

轉入于同年宴，去！手毋，將他新婦，去！再拜了，호더라

〔後〕因知今日，去！可詳證，일년가，不耐多情，去！므로，轉睛，去！니，魂難定，이라，俺！將何等福方，으로，伏侍了這般娘，호리오

那手毋，去！便勸俺，去！야，行了答拜，去！니，俺！雖然，去！나，是個京新，即！去！니，那裏，去！啣得過，리요，畢竟，去！야，行了新婦，去！에，再拜，去！거，俺！始答了再拜，去！고，分兩邊，去！야，跪坐，去！니，手

母，去！解了紅絲，去！야，勸飲了三盃合歡酒，호더라

〔鶻踏鼓〕一飲了，去！에，遐齡，去！이，오，再飲了，去！에，公卿，去！이，오，這二次，去！에，來盃，去！는，這另，去！는，三個，去！添了，去！이라，去！니，若教，去！你，去！言，去！이，死，誕妄，去！이，면，并，盃，去！吞，去！야，長醉不醒，호더라

到了新房，去！야，行了相會禮，去！고，新婦，去！는，仍作當日新婦禮，去！야，回了，去！니，俺！好喫了，夕飯，去！고，好睡了，로라，乞乞，호오，니，解解，去！解，去！야，유시，오，大！你！去！合官，節次，去！生心，去！이나，這調客麼？去！速速，去！히，細細，去！히，招將來，호라，金이，俺！夕飯後，去！에，入于新房，去！니，紅燭，去！兒，去！는，輝煌，去！고，錦衾，去！兒，去！는，燦爛，去！고，香烟，去！兒，去！는，芬馥，去！호，되，無何，去！오，新婦！去！亦到了，호더라

〔調笑令〕是花枝依風，行！去！가는，雲捲青天，明月昇！去！인，기，是天上仙娥，對粧鏡，인！去！는，觀香，去！善，去！薩，去！이，顯神靈，去！이，신，去！가，我！擡頭，去！細，去！看，去！나，面，去！分，去！이，不，去！生，去！이，라，原來，去！俄，去！間，去！拜，去！我，去！娘，去！이，로다

解他紅裙，去！고，襯他綠衣，去！고，抽他銀釵，去！고，去！剝地裏，去！에，好好，去！睡了，로라，大笑，去！不，去！言，去！科，去！라，大！老道，去！令，去！行，去！事，去！善，去！不，去！問，去！可知，去！로，다，且，去！你，去！에，婚姻，去！은，是，去！箇，去！別，去！判，去！付，去！로，去！朝廷，去！에，去！賜

送的婚姻이 니 與他 凡常 扈處 女的 賊漢으로 煞有 分揀 古니 姑爲 安徐 古노라
 聞 古니 你 古 今 則 財 多 米 多 古야 他 前 日에 沒 猜 辨의 古던 生 涯와 是 天 地 相 隔이라 古
 니 你 一 速히 準 備 酒 肴 來 者어 다 三이 解 帶 放 下 科라 金이 起 坐 科라 大 母이 是 大 母
 이 是 大 小 奚 呀야 你 一 去 酒 家 古야 買 了 幾 盃 燒 酒와 好 個 接 酒 來 者어 다 奚 一 進 酒 肴
 科라 大 一 飲 酒 科라 二 一 飲 科라 三이 飲 科라 衆이 醉 科라 起 舞 科라 金이 唱 科라
 (天下樂) 今日에 小 臣이 酒 一 觴으로 誠 心 祝 我 王호니 我 王 恩을 終 身 不 可 忘이 是
 다 茫茫 碧 海 深이 是 高 高 紅 日 長이라 願 東 國 聖 人이 萬 壽 无 疆 古노이다

魚乙氏古句 鳥乙氏古

(太平令) 元子宮小官家 正一般聖上 呼天이 降 福 无 疆 古야 享 壽 福 康 寧 古호니 歌 四
 重 古니 星 輝 海 潤이 是 祝 千 歲 古니 日 升 月 恒이라 從 此 去 萬 年 太 平 古야 照 照 如 烟 花 好
 景이 是 是

低乙氏古羅句 鳥乙鳥乙氏古羅句 的許自句 低乙氏古句 丁低乙氏古句 於我

聖恩伊呀句 伊乃八字鳥乙氏古句 鳥乙鳥乙氏古羅句 衆이 繞 場 走 下 矣

詩曰

一 泥金簇蝶繡雙爲이 是
 白馬金鞍이 輝 里 門이라
 御賜紅羅三百尺이
 紅羅縷縷 摠 君 恩이라 是 是
 二 春風이 吹 不 到 貧 家 古야
 寂寞 鶯 啼 半 老 查 是 是 是
 一 夜 東 君이 宣 雨 露 古사 是 是
 兩 枝 碧 樹에 晚 桃 花 是 是